

부산의 해상관광활성화에 관한 혁신적 전략(1)

김재관¹⁾*

The Innovative Strategy on the Activation of Marine Tourism in Busan

Jaegwan Kim*

요약 : 부산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정착기와 확산기를 맞이하였으며 무역도시로 발달하였다. 2000년 이후 인구감소, 제조업의 이전, 외래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경제력이 약화되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항구적·해안의 지형적·지역의 전통산업적·국제교통적 특성의 강점을 이용하여 해상관광활성화의 혁신적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의 해상관광활성화의 전략을 규명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안과 해상의 환경을 고려하여 해상관광의 거점을 선정하고 거점의 정체성을 규명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선정된 다수의 거점 중에서 핵심적인 관광거점은 외래관광객을 집중시키는 관광터미널의 기능이 필요하고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 셋째, 각각의 관광거점은 관광객이 다양한 해상관광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 특화되어야 한다. 넷째, 해상관광거점은 해상관광루트로 연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해상관광의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겨울관광상품인 실내 스케이팅장과 스키장, 해수풀장과 인공해수욕장, 인공잔디썰매장, 인공해안절벽, 해수온천장 등의 관광자원개발이 요구된다.

주요어 : 해상관광거점, 혁신적 전략, 거점의 정체성, 랜드마크, 비수기

Abstract : The commerce and industry of Busan was developed because of good geographical conditions with harbor. After passing its settling-down and diffusing time, Busan has grown in the trade city. Busan has lost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port city since 2000, because of the weakness of its economic power which is caused by the secess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decrease of resident population and foreign tourist. In order to overcome these weaknesses, it is necessary for Busan to take the innovative strategy for the activation of marine tourism. This goal can be achieved by the strong quality of the port city, the coastal terrain, the traditional industry and the international traffic.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nnovative Strategy for the activation of marine tourism in Busan and to suggest the following proposal. First, the government must decide the base of marine tourism under the geography viewpoint of the coast and sea, and develop tourism resources after analyzing the identity of marine tourism base. Second, the core part among the selected bases of marine tourism must be constructed the tourism terminal as the landmark of Busan in order to concentrate foreign tourist. Third, after each base of marine tourism must become the resort for tourists, they are able to experience the activity of marine tourism in this resort. Therefore, each base must be specialized. Fourth, each base must be connected with the route of marine tourism. Fifth, in order to overcome the off-season of marine tourism, winter tourism goods such as skates, skis, artificial sea-bathing pool, artificial swimming beach, artificial sled, artificial rock wall of coast, hot spring resort of salt water are required to be developed in the center of marine tourism base.

Key Words : base of marine tourism, Innovative Strategy, identity of the tourism base, landmark, off-season

1. 서론

우리나라의 해상관광¹⁾은 1968년 12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되고 1969년 태종대와 대천해수욕장이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 태안해안국립공원, 1981년 다도해상국립공원이 추가로 지정되어 해상관광개발의 도입기를 맞이하였다.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199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이 제정되고 해양수산개발원이 설립되었으며 1999년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해상관광의 발전을 맞이하였다. 그 이후 2002년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해양수산부가 한국의 해양문화(해양수산부, 2002)를 조사하고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해양수산부, 2003)을 수립하였으며 해양관광진흥세부실천계획(해양수산부, 2004)을 세워 실행하면서 해상관광

* 영산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항공여행학과 교수(Professor, Dept. of Airline & Tourism, Youngsan University)(kg3535@ysu.ac.kr)

표 1. 해상관광수요의 전망

(단위: 천명)

구 분	1997	1999	2001	2004	2005	2008	2011	2013	증가율	
국 민 관 광 (A)	관광대상인구	35837	36352	37563	37938	39088	40272	41492	42242	
	1인당참가횟수	7.0	5.1	6.1	5.9					
	1인당참가일수	9.6	7.6	8.7	10.67	12.98	13.33	14.60	15.22	
	관광객	31612	33015	36,324						
	관광총량(1일)	344,176	272,607	327,929	404,648	507,436	536,876	605,968	642,893	5.8%
해 상 관 광 (B)	1인당참가횟수	2.11회								
	해상관광참가율 (B/A, 100%)	평균 35% 수준		35	35	37	37	39	40	
	해상관광총량 (1일)		95,412	144,775	141,627	187,751	198,644	236,327	257,157	7.0%

자료: 해양수산부, (2006), 해양관광기반시설조성 연구보고서

개발은 확대되었다.

해상관광에 대한 국내연구는 해상관광공간(이승우, 2002, 2004; 장학봉, 2002; 남정호, 2005; 김성귀, 2006; 이원갑, 2006), 어촌관광(김성귀, 2001; 이승우, 2004; 김정봉, 2006; 윤상호, 2006), 해상관광산업(황진희, 2006), 해상관광개발(김성귀, 2000; 황기형, 1998; 정석중, 2000; 박구원·이수우, 2002; 성기만, 2003; 이종훈, 2004; 이원갑, 2005; 최도석, 1996) 등에 대한 논제로 연구되고 있으며 국외의 연구는 해안지형과 해상관광(Harriott, 2002; Agardy, 1995; Moscardo, 1999), 해상생태관광(Birtles, 2001; Hoyt, 2000; Orams, 1996), 해안지역의 관리 및 개발(Jennings, 2004; Agarwal, 2002)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참여하여 활동하는 적극적인 해상관광, 관광욕구가 내륙관광에서 해상관광으로의 변화, 해상의 생태 및 모험관광, 크루즈관광 등이고 21세기의 관광주체는 해상관광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05년 외래관광객은 6,021,764명이었고 그 관광수입은 56억4980만 달러였으나, 국외로 진출하는 관광객이 10,077,619명으로 119억

4270만 달러를 지출하여 관광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출국하는 내국인들의 목적지는 중국, 일본, 미국, 태국, 필리핀 등으로(문화관광부, 2006) 다양한 해외관광환경을 접하고 체험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목적지는 해상관광지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내국인을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의 관광정책으로 해상관광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일 관광객은 2008년 536,876천명, 2011년 605,968천명, 2013년 642,893천명 등으로 추정되며 이를 근거로 한 1일 해상관광객은 2008년 198,644천명, 2011년 236,327천명, 2013년 257,157천명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표 1) 판단되고 국민여행실태 조사보고서(한국관광공사, 2005)에 의하면 향후 가장 가보고 싶은 부산의 방문관광지는 해운대(73.5%), 태종대(5.0%), 광안리(4.6%)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2006년 상반기의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도 해운대(74.6%), 태종대(6.2%), 자갈치시장(5.7%) 등으로 해상관광활동이 가능한 관광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상관광지와 해상관광자원의 수용태세가 필요함을 입증하고 있다.

표 2. 외래관광객의 한국방문 중 방문지의 연도별 순위 추이

(단위: %)

연도/지역	서울	부산	인천	민속촌	제주도	에버랜드	수원	춘천	경주	판문점	해인사	기타
2003	85.0	19.5	·	16.6	9.8	12.0	·	·	8.8	7.1	2.9	20.9
2004	80.9	20.2	·	13.1	9.7	8.5	·	·	8.1	7.6	2.7	21.6
2005	78.1	23.1	20.9	14.0	9.5	9.5	8.6	6.7	6.4	6.5	·	·

자료: 한국관광공사, 2006, 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서 재작성함

<표 2>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이 찾는 방문지의 연도별 추이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부산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의 점유율은 2003년 19.5%이었으며 2004년에는 20.2%, 2005년에는 23.1%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외래관광객의 입국경로를 보면 타지 경유입국이 전체의 44.5%인 75998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김해공항 22.2%, 외국선원 19.7%, 국제여객부두 13.7%, 등으로 나타났다(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2007). 이와 같은 부산의 외래관광객의 현황은 부산이 경유지의 관광목적지로 선택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산에는 해상의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재형 해상복합관광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광공간으로서의 부산관광은 1945년 이후 영도 다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이 관광자원화 되어 관광거점이 되었으며, 1969년 태종대와 금강공원이 관광지로 지정되어 관광거점으로 발달하였다. 1980년대 이후 부산의 관광지개발은 각 구청단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관광지 및 여가공간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점관광지를 개발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해상관광개발계획, 국민관광객의 증가 및 해상관광의 수요증가, 향후 부산을 방문할 잠재관광객의 해상관광지 선호, 관광발달과정에서 나타난 대외적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점형 관광지의 부재 등의 분석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부산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창조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 내륙과 해안지역을 벗어나 해상을 이용하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의 관광지 및 여가공간의 현황과 분석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광지유형과 관광거점을 선정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 부산의 관광산업과 경제적 효과

부산의 경제지표를 대표하는 산업은 농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및 통신업, 관광업

표 3. 부산의 관광산업 생산자가격과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세 부분 류	생산자가격	비중
관 광 산 업	숙박업	803,713	1.18%
	음식점	2,528,607	3.73%
	소매업	2,978,291	4.39%
	철도여객운송업	358,162	0.53%
	도로여객운송업	1,825,509	2.69%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361,817	0.53%
	외항운송	450,751	0.66%
	항공운송	141,781	0.21%
	육상운수보조서비스	328,134	0.48%
	수상운수보조서비스	471,171	0.69%
	항공운수보조서비스	21,418	0.03%
	기타운수관련여행업	123,358	0.18%
	문화서비스	20,331	0.03%
	영화	17,401	0.03%
	연극,음악 및 기타예술	54,902	0.08%
운동 및 경기관련서비스	58,514	0.09%	
기타오락서비스	106,300	0.16%	
	합 계	10,650,160	15.69%

자료: 부산시 관광진흥과(2006)

등으로 구분된다. 관광산업은 산업의 분류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고 연관성을 고려하여 산업연관표를 만들어 구분하고 있다. 부산의 관광산업은 숙박업, 음식업, 소매업, 철도여객운송업, 도로여객운송업,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외항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수보조서비스, 수상운수보조서비스, 항공운수보조서비스, 여행업, 문화서비스, 영화,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운동 및 경기관련서비스, 기타오락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2000년 기준 부산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총매출액은 4조 6814억원으로 지역총생산액의 14.3%로 추정되었다. 관광객의 총매출액에서 승수효과를 고려하여 산출한 관광산업부문의 생산자가격은 10조 6501억원이 되고 부산전체산업부문의 15.69%를 차지한다. <표 3>에 의하면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소매업으로 4.39%이고 그 다음으로 음식점 3.73%, 도로여객운송업 2.69%, 숙박업 1.18% 등의 비중이다.

또한 관광산업 생산자가격을 기준으로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의 유발계수를 가산하면 관광객의 지출액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부산관광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의 유발효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는 26조 1489억원으로 전

표 4. 부산관광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생산유발효과	비율	부가가치유발효과	비율	고용유발효과	비율
숙박업	2,428,892	1.70	909,359	1.47	21,031	1.56
음식업	5,100,579	3.57	1,128,691	1.82	92,962	6.88
소매업	5,441,575	3.81	2,964,791	4.79	79,862	5.91
철도여객운송	901,529	0.63	370,207	0.60	3,234	0.24
도로여객운송	4,122,788	2.89	2,057,120	3.33	66,459	4.92
연안운송	1,221,663	0.86	724,150	1.17	6,223	0.46
외항운송	215,230	0.15	22,162	0.04	785	0.06
항공운송	205,986	0.14	29,999	0.05	331	0.02
육상운수보조	834,590	0.58	66,997	0.11	11,023	0.82
수상운수보조	4,853,157	3.40	365,832	0.59	4,172	0.31
항공운수보조	52,480	0.04	5,406	0.01	463	0.03
기타운수여행업	331,275	0.23	438,440	0.71	5,652	0.42
문화산업	21,069	0.01	12,037	0.02	994	0.07
영화산업	37,494	0.03	18,553	0.03	1,237	0.09
연극예술	122,283	0.09	81,799	0.13	528	0.04
운동경기	91,055	0.06	73,550	0.12	4,682	0.35
기타	167,285	0.12	103,255	0.17	7,324	0.54
관광산업	26,148,930	18.31	9,372,348	15.15	306,962	22.70
전체	142,815,010		61,851,954		1,352,100	

자료: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2006)

체생산 유발액 142조 8150억원의 18.31%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조 3723억원으로 전체 부가가치유발액 61조 8519억의 15.15%를 차지하며, 고용유발효과도 전체 고용 1백35만 2천명의 22.7%를 차지하는 306,96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에서 생산유발효과를 보면 소매업과 음식업이 높고 다음으로 수상운수보조서비스와 도로여객운송업이 높다. 이것은 관광객이 관광지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관광활동과 관계가 깊다. 반면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문화산업, 연극예술업, 영화산업, 운동경기업 등의 생산요소는 관광자원으로 연계되거나 해상관광공원개발로 유발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수상운수보조서비스업은 생산유발효과에 비하여 부가가치유발효과(0.59%)와 고용유발효과(0.31%)가 아주 낮다.

이상과 같이 부산경제에서 관광산업의 비중과 부산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에 부응하여 부산시는 관광산업을 부산시의 4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

하였으며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에서 관광산업을 21세기 부산경제의 핵심전략 축으로 설정하였다. 2007년도 관광진흥 추진계획에서도 기본방침의 목표를 아시아·태평양시대 국제해양관광도시의 육성과 부산의 특성과 매력이 조화로운 관광도시를 육성하는 것으로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내륙위주의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자원개발로 인하여 해상과 관련된 부산만의 관광상품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산은 해상관광거점과 해상관광활동을 활성화하는 해상관광시설개발로 유발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3. 부산지역 관광지의 관광자원별 관광객의 분포와 특색

관광지는 관광객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관광지²⁾, 관광단지³⁾, 관광특구⁴⁾, 자연공원⁵⁾,

도시공원⁶⁾, 관광농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⁷⁾, 어촌관광⁸⁾, 유원시설지역⁹⁾, 휴양업지역¹⁰⁾, 사찰지역¹¹⁾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부산의 관광권역은 동부해안권, 중부해안권, 중부내륙권, 서부낙동강하구권(김재관, 1996) 등으로 구분되고 해상관광권역은 동부해안권, 중부해안권, 서부낙동강하구권 등이다. 대표적인 자연관광지원은 송정·해운대·광안리·송도·다대포의 5대 해수욕장, 오륙도와 용호반도해안, 태종대해안, 다대포해안과 무인도서, 낙동강하구, 금정산 등이다. 이러한 관광지는 자연자원이 핵심적인 관광자원으로 특화되어 되어 관광지로 발전하였다. 문화관광지원은 범어사, 금정산성, 유엔묘지, 동래야류와 수영야류, 부산국제영화제, 자갈치문화관광축제, 부산바다축제, 부산비엔날레, 기장대면벌치축제, 해운대달맞이축제 등이다. 산업시설관광지원은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 항만시설, 등대와 방파제 등이다. 왜래관광객의 방문으로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다소 발휘하고 있는 곳은 태종대, 해운대, 자갈치시장, 범어사 등으로 해안지역에 분포한 관광지이다. 부산의 관광자원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균형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부산의 관광전달프랫폼이나 관광터미널과 같은 관광거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관광자원별 관광객과 특색은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32개 주요 관광지(관광자원)에서 19개소는 자연관광지이며 13개소는 인문관광지이다. 32개소의 자연관광지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은 해운대(31.4%)이고 다음으로 광안리해수욕장(21.1%), 송정해수욕장(18.1%, 중앙(민주)공원(7.6%), 송도해수욕장(7.3%) 순이다. 자연관광지(관광자원)에서 해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광지는 88.2%가 되어 특화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해운대가 해수욕장, 지정관광지, 관광특구, 해안지형, 누리마루, 국제영화제 등으로 특화되어 있고 광안리해수욕장은 광안대교, 교통조건, 대중적 관광환경과 관광산업체의 집중, 유원시설개발, 축제 등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태종대는 해식의 아름다운 해안지형으로 특화된 지정관광지이나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유는 관광객이 해안지형을 전체적으로 감상할 수 없으며 해상의 선박에서만 가능하며 관광객의 활동공간이 협소하다. 또한 해안지형의 관광자원이 단조롭고 지원관광자원이 없

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태종대의 배후지역이 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터미널로 개발되어야 한다. 오륙도는 용호반도의 해상에 있는 6개의 섬으로 그 면적이 협소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해상의 유람선에서 관광이 가능하고 해안지형을 감상하는 정적이고 단순한 해상관광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오륙도와 연계되는 해안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됨에 따라 해안경관이 파괴되고 오륙도의 이미지가 상쇄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관광지원은 파괴되면 복원이 불가능하고 미적현상을 다른 대체물로 회복할 수 없다.

인문관광지(관광자원)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은 어린이대공원(41.9%)이고 그 다음으로 용두산공원(16.6%), 자갈치축제(13.7%), 광안대교불꽃축제(6.7%) 순이다. 어린이대공원은 수원지, 유원시설, 어린이회관, 교통조건 등의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다. 용두산공원은 교통조건과 도심지, 자갈치시장, 자갈치축제, 국제영화제, 국제시장 등으로 특화된 강점들이 있어 관광객이 집중된다. 이러한 산업적 자원이 특화된 관광공간은 관광특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고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용두산공원~국제시장~남포동의 전문소매상가와 FIFA광장~자갈치시장로 연계되는 지역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인문관광지의 관광객 중 해상관광지(관광자원)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456.1만명으로 30.6%이다.

한편 부산도시공원의 현황을 보면 근린공원 104개소, 묘지공원 6개소, 체육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337개소, 소공원 3개소, 유원지 14개소 등이다. 근린공원에서 관광지의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중구의 용두산공원, 서구의 송도공원, 부산진구의 어린이대공원, 동래구의 금강공원, 해운대구의 동백공원과 APEC 누리마루공원, 기장군의 대변공원과 죽도공원 등이다. 유원지의 경우 태종대유원지와 몰운대유원지 등이 관광지의 기능을 일부 발휘하고 있다. 부산의 도시공원 총 467개소 중 11개소(2.4%)만이 대외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시공원개발이 지역주민의 관광복지 또는 생활복지를 위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대외경쟁력을 갖는 해상관광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전체의 2.4%인 11개소의 도시공

표 5. 부산지역의 관광자원별 관광객과 특색

(단위: 만명)

구분	관광자원명	위치, 행정구역	관광객	관광자원의 특색과 관광활동
자연 관광 자원	일광해수욕장	해상, 기장군	9.2	기온, 사빈, 해수, 해수욕, 해산물, 낚시
	임랑해수욕장	해상, 기장군	12.4	기온, 사빈, 해수, 해수욕, 해산물, 낚시
	해운대해수욕장	해상, 해운대구	1507	기온, 사빈, 해수, 해수욕, 해산물, 동백섬, 각석, 누리마루, 유람선
	해운대 일출	해상, 해운대구	75	동백섬, 해수욕장, 달맞이고개
	해운대 월출	해상, 해운대구	80	동백섬, 해수욕장, 달맞이고개, 달집태우기
	송정해수욕장	해상, 해운대구	867	기온, 사빈, 해수, 해수욕, 해산물, 죽도공원
	광안해수욕장	해상, 수영구	1015	기온, 사빈, 해수, 해수욕, 해산물, 수변공원, 광안대교
	오륙도	해상, 남구	4	기온, 해수, 도서와 갯바위, 유람선, 낚시
	이기대	해상, 남구	6.2	기온, 해수, 파식대, 자연공원, 관광도로, 해산물
	이기대 일출	해상, 남구	1.5	해수, 자연공원, 관광도로
	이기대 월출	해상, 남구	1	해수, 자연공원, 관광도로
	중앙(민주)공원	내륙, 중구	365	충혼탑, 도로공원, 일출과 월출
	송도해수욕장	해상, 서구	350.5	기온, 사빈, 해수, 해수욕, 해산물, 관광테마공원
	다대포해수욕장	해상, 사하구	91	기온, 사빈, 해수, 해수욕, 해산물
	을숙도	해상, 사하구	11.8	기온, 해수, 철새와 탐조대, 하구, 자동차극장
	물운대	해상, 사하구	11.5	기온, 해수 갯바위, 송림, 일출, 일몰, 월출
	태종대	해상, 영도구	193	기온, 해수, 갯바위, 파식대, 단구, 자갈마당, 해산물, 유람선
	금강공원	내륙, 동래구	90	송림, 압괴, 케이블카, 유원시설, 동래야류, 동래학춤
	금정산	내륙, 금정구	109.5	송림, 음식물, 금정산성
	인문 관광 자원	대변벌치족제	해상, 기장군	40
해운대모래축제		해상, 해운대구	60	사빈, 해수, 모래작품
해운대바다축제		해상, 해운대구	50	사빈, 해수, 해수 수영대회, 유람선,
광안대교불꽃축제		해상, 수영구	100	해수, 불꽃놀이, 유람선, 해산물
UN 묘지		내륙, 남구	25	묘지공원
시립박물관		내륙, 남구	25	문화제, 전시관
오륙도축제		해상, 남구	2.1	해수, 도서와 갯바위, 유람선,
자갈치축제		해상, 중구	204	해산물, 어시장
용두산공원		내륙, 중구	248	도시공원, 부산타워
범어사		내륙, 금정구	54.8	사찰, 대응전, 일주문, 당간지주
북천동고분공원		내륙, 동래구	12	고분전시관, 영상관
어린이대공원		내륙, 부산진구	625.7	송림, 유원시설, 호수
충렬사		내륙, 동래구	45.3	충혼관, 동래읍성 동장대, 야외예식장

자료: 현장답사한 자료와 행정기관의 통계를 재구성함. 관광자원의 요소를 고려하여 자연과 인문으로 구분하였음.

원에서 송도공원, 동백공원과 APEC 누리마루공원, 대변공원과 죽도공원, 태종대유원지와 물운대유원지 등 7개소의 관광지가 해안지역에 분포하여 내륙의 관광지보다 해안의 관광지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1일 지역주민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

객은 이곳에서 해맞이를 하였다.

4. 부산의 해상관광 현황과 분석

해상관광은 해안지역과 해상의 도서를 근거지로 거점을 형성하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리아스식해안과 다수의 도서가 필수적으로 분포하여야 한다. 부산의 해안선은 총 162km이고 도서는 42개소(유인도서 3, 무인도서 39)이며 도서면적은 약 38.4km²이다. 해안선이 가장 긴 곳은 사하구(45km)이고 다음으로 남구(25.4 km)이다. 도서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 15개이고 다음으로 사하구(14개)이다. 영도구, 해운대구, 사하구, 남구, 강서구, 기장군 등의 해안이나 해상은 해상관광의 근거가 된다. 부산의 해상관광근거지는 기장군의 일광해수욕장·임랑해

부산연안의 해상유람선관광은 주말퀵스타크루즈(제1부두→조도→태종대→물운대→오륙도→해운대→광안대교→해운대→오륙도→제1부두), 테즈락크루즈(제1항로: 제1부두→오륙도→광안대교→해운대→제1부두, 제2항로: 제1부두→태종대→주전자섬→오륙도→제1부두), 파티·컨벤션크루즈(해운대 우동에서 해운대, 달맞이, 광안대교, 이기대, 오륙도, 태종대 등을 유람하는 코스), 유람선관광(해운대오륙도유람선: 해운대미포→동백섬→수영만→광안대교와 광안리→이기대→오륙도→광안대교와 광안리→수영만→동백섬→해운대미포, 태종대자갈치유람선: 해운대미포→광안대교→이기대→오륙도→태종대→부산대교→자갈치시장) 등이다. 최근 광안대교 불꽃축제 및 일출과 월출의 1회성 해상관광이 해상에서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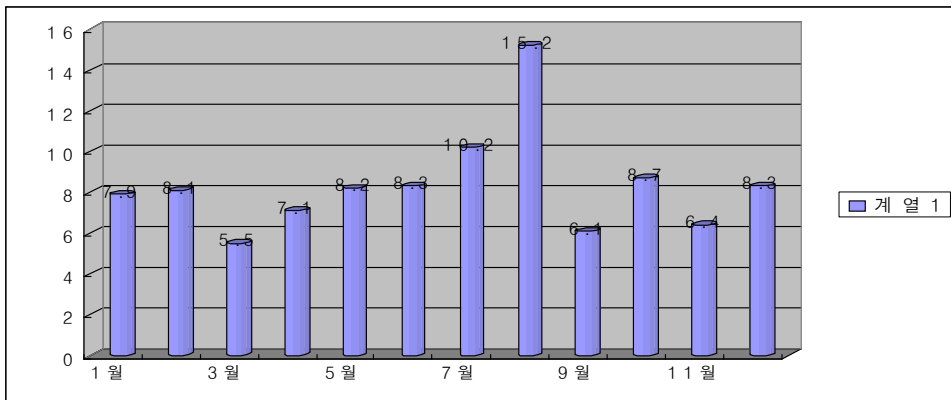


그림 1. 관광유람선 관광객의 월별분포

수욕장·칠암·이천과 삼성·월진·대변·시랑, 해운대의 송정해수욕장·청사포·미포·해운대해수욕장·동백섬·요트장, 수영구의 민락·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 남구의 이기대와 오륙도, 중구의 국제여객터미널·연안여객터미널·부산대교·영도대교·남항, 영도구의 하리와 태종대, 서구의 송도해수욕장과 압남공원, 사하구의 감천항·다대포해수욕장·물운대·을숙도, 강서구의 명지와 가덕도 등이다. 이상과 같은 해상관광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객의 관광활동은 해안경관감상, 해수욕, 낚시, 해산물섭취, 유람선관광 등으로 전국의 해안지역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관광활동으로서 대내외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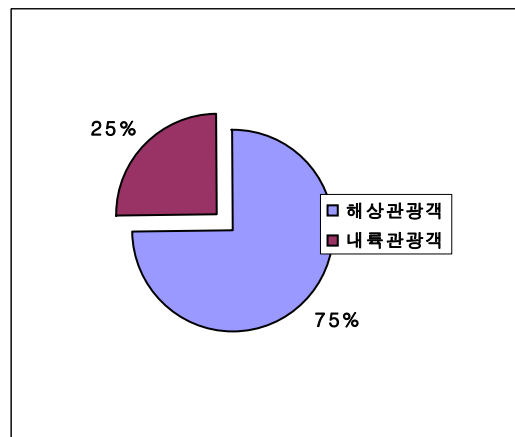


그림 2. 부산의 해상관광객과 내륙관광객의 분포

부산의 해상관광유람선을 승선한 관광객은 총 381,396명으로 8월이 15.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월 10.2%로 여름의 해상관광 피크기와 일치한다. 그 다음으로 10월 8.7%, 6월과 12월 8.3%, 5월 8.2%, 2월 8.1% 순이다. 계절별로 보면 여름이 33.7%로 해상관광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겨울의 승선관광객이 전체의 24.3%로 높게 나타나 해상관광의 개발잠재력을 시사하고 있다.

해상관광의 현황은 해상관광객으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006년 여름 성수기와 축제를 중심으로 해상관광객을 행정구별로 보면 해운대구 2639만명(해운대해수욕장 1507만, 송정해수욕장 867만, 해맞이 75만, 달맞이 80만, 모래축제 60만, 바다축제 50만)가 56.2%로 해상관광의 거점을 형성하고 있고 다음으로 수영구 1115만명(광안리해수욕장 1015만, 광안대교불꽃축제 100만) 23.8%, 서구(송도해수욕장 350.5만명) 7.5%, 중구(자갈치시장과 축제 350.5만명) 4.4%, 영도구(태종대 193만명) 4.1%, 사하구

114.3만명(다대포해수욕장 91만, 을숙도 11.8만, 몰운대 11.5만) 2.4%, 기장군 61.6만명(대변 40만, 일광해수욕장 9.2만, 임랑해수욕장 12.4만) 1.3%, 남구 14.8만명(오륙도 4만, 오륙도축제 2.1만, 이기대 6.2만, 이기대일출 1.5만, 이기대달맞이 1만) 0.3% 순이다. 관광객의 해상관광공간을 해안의 배후지역, 해안지역, 해상 및 해저수역 구분하여 보면 부산의 해상관광객은 해안의 배후지역과 해안지역에서 그들의 관광목적 달성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해안선과 도시의 경관 및 지형의 특성, 기존 해안에 입지하고 있는 여항과 관광지의 기능으로 인한 해상관광거점의 개발잠재력, 축제 및 산업자원의 연계성, 교통의 결절점 및 국내외 인구의 유동성, 연안크루즈산업의 현황, 최근 해상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해상관광의 개발구성요소가 구축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부산해상관광개발을 위한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등의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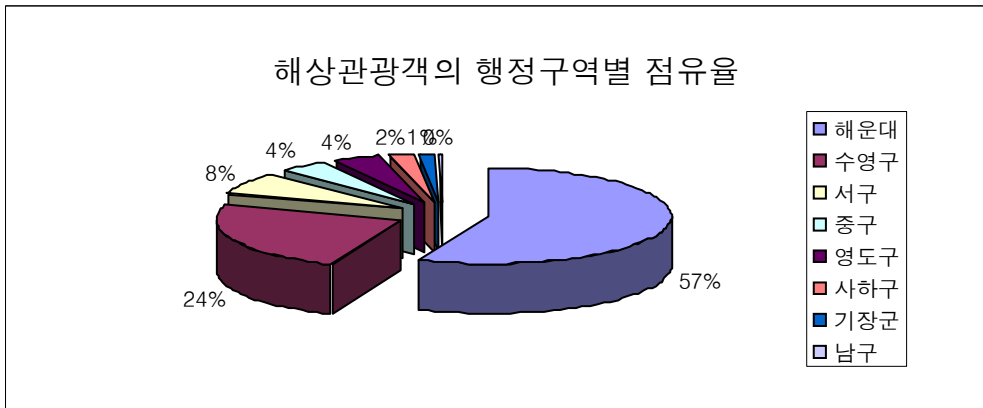


그림 3. 해상관광객의 행정구역별 점유율

표 6. 해상관광환경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등의 구성요소

유형	해상관광개발 전략의 구성요소
해상관광 강점	부산의 4대 전략산업, 도시관광잠재수요 풍부, 국제교통 시종점, 동남관광권의 중심도시, 동북아해양관광의 관문, 연중 온화한 기후 및 수려한 해안과 강하구
해상관광 약점	해상관광의 중심거점 부재, 크루즈산업의 약세와 전용부두 부재, 해수욕장중심의 해상관광 내륙관광자원의 개발, 해상관광지원 배후토지의 부족, 해안지역의 난개발
해상관광 기회	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광개발 의지, 북항재개발, 부산방문 관광객 증가와 중국관광객의 증가, 고속철도의 준공, 주 5일제 근무와 휴가제도 강화, 부산영화제의 정착과 국제이벤트의 증가
해상관광 위기	경제력의 전국비중 감소, 원화강세와 독도문제로 일본관광객 감소, 관광산업의 성장동력 부재, 독특한 관광상품 부재, 해양관광 인프라 부족, 타시도의 해양관광 경쟁력 증강

부산의 해상관광활성화에 관한 혁신적 전략(1)

해상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상관광환경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등의 구성요소는 <표 6>과 같이 각각 6개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강점의 요소는 지원요소를 강화하여 계획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하고 약점의 요소들은 관광정책적 의지의 전환과 해상관광개발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해상관광 기회의 구성요소는 실제 해상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거나 실행될 것으로 수용태세를 강화해야 성공할 수 있다. 위기의 요소들은 해상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당면의 문제들로 대안을 찾아야 하며 강점과 기회의 요소들을 강화하면 해소될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부산해상관광지 관광객의 설문조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에 의하면 방문빈도는 2~3회가 37.8%로 가장 많고 방문기간은 당일이 66.9%로 최고이다. 관광목적은 휴양과 휴식이 3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 25.8%, 바다구경 20.6%, 행사참가 8.9% 순이다. 위의 방문빈도, 방문기간, 관광목적 등의 점유율을 보면 부산

의 해상관광지는 부산시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해상관광객들의 부산비다에 대한 첫 이미지를 보면 해운대는 부산시외에 거주하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강하게 인지되어 있고 광안리는 해운대보다도 낮지만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태종대는 8~10%를 유지하여 해상관광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송정은 4~6%의 인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상관광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송도는 관광객의 이미지는 3%미만으로 낮으나 송도 해상관광테마공원의 재개발로 해수욕장과 함께 해상관광거점의 기능이 있다. 기장군의 대변항은 멀치축제와 기장미역으로 관광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하구의 다대포는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비하여 이미지가 낮다. 자갈치시장에 대한 이미지는 1%미만으로 극히 낮다. 이는 자갈치시장의 특성인 해산물과 건어물이 전국의 해안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확산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오륙도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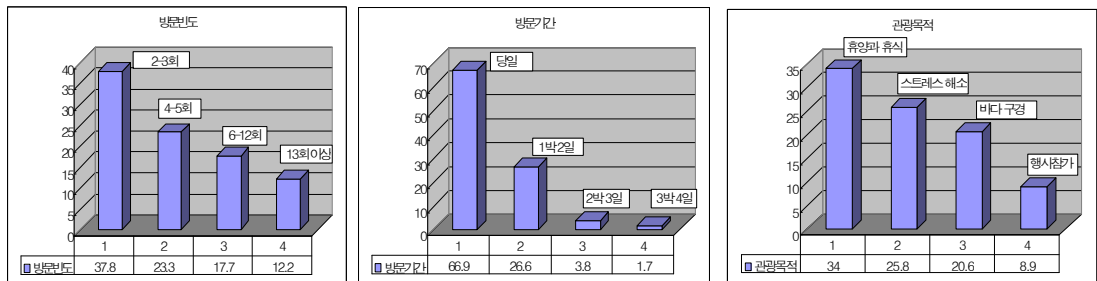


그림 4. 해상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의 방문빈도, 방문기간, 관광목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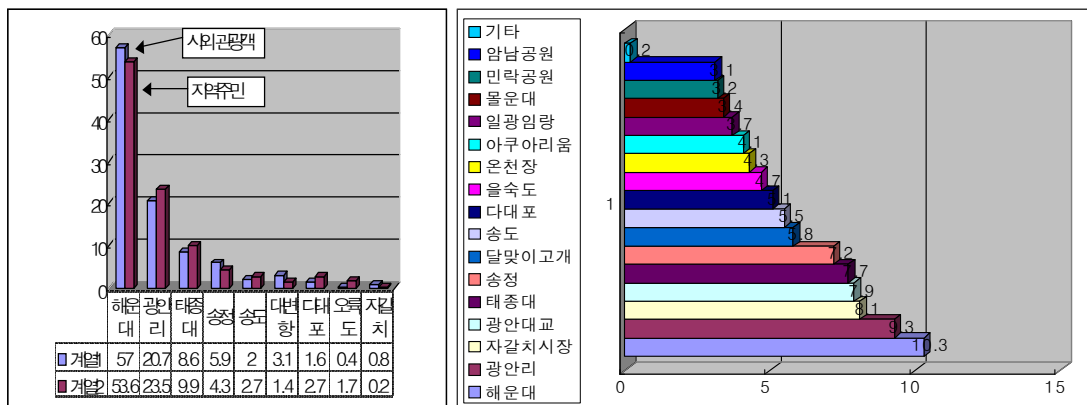


그림 5. 부산의 바다이미지와 방문경험/방문계획에 대한 점유율 (단위: %)

되어 왔으나 접근성이 낮고 해안지역의 난개발로 인하여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으며 최근 이기대공원의 개발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해상관광객들이 해상관광지를 이미 방문하였거나 차후에 방문할 계획에 대한 선택율을 보면 해운대가 10.3%로 가장 높고 아쿠아리움 4.1%와 달맞이교개 5.8%를 합하면 전체의 20.2%를 점유한다. 해운대는 해운대의 향토적 역사성, 수려한 자연환경, 풍부한 지형자원(사빈, 해식애와 파식대, 육계도인 동백섬), 일출과 월출의 전망, 국제회의장인 누리마루, 지정관광지, 관광특구, 부산국제영화제, 백스코 등으로 강력하게 각인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핵심적인 해상관광거점을 이룬다. 차순의 광안리는 관광객의 특성에서 해운대와 차별되지만 광안대교 7.9%와 민락공원 3.2%를 합하면 20.4%로 해운대보다도 높다. 이유는 광안리는 접근성이 높고 해수욕장, 광안대교, 민락수변공원, 집적된 관광사업체의 해변관광타운 등에서 해운대와 같은 관광분위기를 접하여 관광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광안리도 중요한 부산의 해상관광거점이다. 자갈치시장은 '부산의 바다'에 대한 이미지는 극히 낮지만 실제 방문하는 비율에서는 8.1%로 다소 높다. 자갈치시장은 해양수산의 산업적 해상관광지로 연안어업의 전진기지, 수산물시장과 해산물섭취, 자갈치축제, 구도심적 특성과 영상의 메카, 국제시장 등으로 특화되어 해상관광거점의 강력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태종대는 전국적인 지정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명성에 비하여 다소 낮은 7.7%를 점유한다. 이러한 이유는 접근성이 낮고 해안지형, 바다와 파도, 영도등대 및 부대시설 등의 정적인 해상관광활동의 관광자원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객들은 해상관광지와 관련된 관광환경에서 취약한 접근성과 해상관광교통의 필요성, 여름과 겨울의 관광매력의 큰 격차, 계절별 해상관광프로그램의 부족, 해안지역의 관광편의시설의 부족, 해상관광활동의 체험시설 부족 등을 제안하였다.

5. 해상관광활성화의 방향과 전략

해상관광활성화란 해안과 해상에 분포하는 해상관광의 구성요소와 해안과 해상의 관광자원을 이

용하는 기구나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거나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하고 관광산업체의 매출을 증가시키며 관광적 현상을 집진적으로 활발하게 진흥·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해상관광객이 해상과 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게 하고, 해상관광지로 쉽고 편하게 접근하여 관광지에서 식음료를 먹고·즐거며·체험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면 해상관광은 활성화된다.

전술한 부산의 관광산업과 경제적 효과, 부산지역 관광지의 관광자원별 관광객의 분포와 특성, 부산의 해상관광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부산의 해상관광활성화의 방향은 첫째, 우리나라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과 부산의 도시발전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산의 관광은 동북아 해양관광거점도시의 육성이다. 그리하여 부산은 제1의 항구도시의 강점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해상관광도시¹²⁾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상거점을 연계하는 해상은 국제해상공간으로 특화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해상관광객의 관광수요특성에 따라 주제별로 특화되는 해상거점이 조성되어야 하고, 중심적 해상관광거점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 부산의 해상에 관광개발과 관련되는 북항재개발, 영도등대 및 태종대의 활성화, 북항대교건설, 명지대교건설, 나무섬의 해상공원개발 등의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개발은 해상관광의 지역학적 구상에서 논의되어 지속가능한 해상관광개발이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복합리조트형의 해상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해상의 관광자원적·지리적·항구도시적 정체성과 비교우위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재적 자원의 재발견과 연계성이 강한 부존관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관광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주민과 외래관광객을 위한 해상관광기능이 조화를 이루면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분리·연계되는 관광공간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해상관광거점은 해상 및 육상으로 관광교통거점(국제공항, 국제여객부두)를 매체로 내륙의 역사·문화관광거점과 관광루트로 연계되고 남해안관광벨트 및 동해안관광벨트와 연계되어야 한다. 여섯째, 관광개발계획기는 개발과 환경보전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되도록 가치관

을 확립하여야 하고 해안지역은 관광개발 및 관광 환경보존지역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해상관광활성화의 전략이란 해상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본방향과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방안의 결정을 의미하는 말이다. 해상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해상관광적 현상을 강화시키는 것, 현존하는 해상관광의 부정적인 점 및 약점을 제거하여 개선시키는 것, 해상관광의 새로운 영역이나 관광자원을 창출하는 방법 등이다. 일반적으로 관광지의 활성화는 3가지의 방법을 모두 선택하여 전략으로 실행하고 있다. 해상관광활성화를 위한 부산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등의 전술한 내용을 고려한 해상관광활성화의 전략은 첫째, 부산은 국제적인 해상관광항구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기장군의 대변항, 해운대구의 송정항과 미포항, 남구의 오류도항, 중구의 북항과 남항, 영도구의 태종대항, 서구의 송도항, 사하구의 나무섬항과 다대포항, 김해공항과 연계되는 공항국제여객부두(가상), 가덕도의 대항항 등을 해상관광의 거점으로 선정하고 250톤급 이상의 관광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두를 개발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해상관광거점은 지역의 문화적·산업적·사회적 잠재지원을 재개발하고 발굴하여 관광자원화되어야 하며 각각 특색이 차별화 되어야 한다. 또한 영도는 해상관광의 중심적인 해상거점으로 개발되고, 봉래산 정상부는 독특한 전망대시설이 축조되어 부산의 랜드마크¹³⁾(황성수, 1984; 이동화·강영조, 1999; 김종호 등, 2002)가 되어야 한다. 영도의 해상거점에 대한 특화구상은 봉래산의 산록과 해안을 중심으로 관광성곽지구(가야궁, 신라궁, 백제궁 등), 해상(해중)스포츠지구, 해상레저·휴양지구, 해양관련 행정 및 연구지구, 도시 및 해상전망지구, 크루즈관광시설 및 수변친수공간지구, 해상산업지구(해양연구소, 조선산업 체험과학관, 해산물 부화장, 해양동물원 등), 해안경관지구, 지하 및 해저주차지구 등이다. 영도해상거점의 특화구상은 북항재개발과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부산은 항구도시, 상업 및 무역도시라는 전통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항구시설, 구조물, 수산시설, 재래시장 등이 해상관광과 연계되어 후광효과를 발휘하여야 하고, 관광거점(해안지역의 11개소)을 중심으로 독특한 제품의 상가, 무역전시관, 해상민속마을, 향토

중요마을, 향토귀신문화마을, 해양민속공연 및 전시관, 향토문화축제, 전통5일장, 면세점 등이 특화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해상관광거점은 자연경관과 관광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의 거주지와 분리되어 지구별로 외형적 구조가 특화되어야 한다. 관광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하며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 발달은 Exploration, Involvement, Development, Stagnation, Rejuvenation 또는 Decline 등의 단계로 전개된다. 처음 Exploration과 Involvement의 단계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관계는 친화적 상호작용으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나 Development의 단계가 되면 갈등으로 적대시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의 거주지와 관광지는 분리되어야 하고 협력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완충지역이 요구된다. 넷째, 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절상품을 개발하거나 주변의 계절상품을 연계시킨다. 관광지는 비수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산의 비수기는 겨울이다.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해상케이블카, 문화체험마을, 해양박물관 및 자연사박물관, 일출 및 월출관광공원, 겨울관광상품인 실내 스케이트장과 스키장, 해수풀장과 인공해수욕장, 인공잔디썰매장, 인공해안절벽과 해수폭포, 해수온천장 등의 관광자원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해상



그림 6. 부산의 해상관광거점과 해상관광루트

관광거점은 <그림 6>과 같이 기장대변, 송정, 해운대 미포, 오류도, 북항, 태종대, 자갈치, 송도, 다대포, 대항, 공항국제여객부두 등이고 해상관광

루트로 연계되어야 한다. 그 해상관광루트는 ① 김해국제공항~공항국제여객부두~다대포~나무섬~송도~자갈치~태종대~오륙도~해운대~송정~기장대변, ② 김해국제공항~공항국제여객부두~나무섬~태종대~해운대, ③ 북항~태종대~오륙도~해운대~기장대변, ④ 북항~태종대~나무섬~대항, ⑤ 김해국제공항~공항국제여객부두~대항~나무섬~태종대~해운대~대변, ⑥ 북항~태종대~나무섬~해운대, ⑦ 김해국제공항~공항국제여객부두~태종대~해운대, ⑧ 김해국제공항~공항국제여객부두~나무섬~송도~태종대~북항, ⑨ 다대포~나무섬~송도~태종대~해운대~북항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으며 남해안해상관광벨트 및 동해안해상관광벨트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부산의 해상관광활성화의 방향과 전략의 내용을 관광학적 및 관광지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관광사업자들은 해상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안정적인 관광수요에 대한 수용태세를 갖출 것이며 해안을 따라 산재한 관광사업시설이 개선되고 정비되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목적지가 될 것이다.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관광객들은 해상관광교통으로 해상관광거점에 도착하여 관광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해상관광자원을 접하여 그들의 관광목적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지역주민에게는 고용과 소득이 창출되며 생활환경이 정비되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해상관광개발은 부산경제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이다. 관광객체인 관광자원은 해상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정비되고 개발되어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관광거점 중심의 해상관광활성화로 인하여 부산은 동남해안관광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남해안해상관광벨트 및 동해안해상관광벨트와 연계되어 부산시의 4대 전략사업의 하나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해양관광도시로 육성될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부산의 해상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해상관광에 대한 연구동향, 해상관광의 필요성, 부산의 관광산업 비중과 경제적 효과, 부산시의 내륙위주의 관광개발방식에서 해상관광개발로의 전환, 해

상관광지의 경쟁력과 관광자원의 특성, 해상관광객의 특성, 부산관광의 현황(강점, 약점, 기회, 위기), 종합적인 관광여건을 분석한 해상관광활성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여 관광정책문제를 제안하고 관광객의 관광활동이 해상관광루트를 통하여 이루어져 해상관광거점을 활성화시키며 도시계획의 개발관점을 관광환경 중심의 개발관점으로 전환시켜 관광공간구조를 재편하려는 의도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해상관광거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추후 독자적인 연구주제를 통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차적인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은 아래와 같다.

부산의 관광은 가야와 신라시대부터 온천장(동래온천, 해운대온천), 해안경승지(해운대 운촌과 동백섬, 신선대, 태종대, 낙동강하구), 범어사 등을 지방관리, 승려, 양반과 선비 등이 빈번하게 방문하여 전통적인 관광지로 정착되면서 발달하였다. 1945년 이후 전통적 관광지가 정비되고 해수욕장이 개발되면서 관광지는 발달하였으나 상공업 중심의 도시개발계획이 진행되어 대외적으로 특화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는 관광지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관광지와 도시공원의 개발도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공간의 차원에서 개발되고, 해안지역의 관광지도 관광사업자를 중심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졌다.

최근, 체험관광, 해상스포츠관광, 생태 및 녹색관광, 유람선관광 등의 관광수요의 변화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해안과 해상의 관광지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산은 부산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항구도시, 상·무역도시, 국제회의도시, 해상의 거점인 영도 등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해상관광개발이 이루어져 바다를 중심으로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연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안 및 해상에 분포한 공간을 중심으로 해상관광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해상관광거점은 대변항, 송정, 해운대, 광안리, 오륙도, 북항, 태종대, 자갈치시장, 송도, 다대포 대항항, 김해국제공항 여객부두 등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관광거점은 지역정체성의 가치를 발휘하는 관광자원 또는 관광환경으로 특화되어야 한다.

둘째, 선정된 다수의 관광거점 중에서 대표되는 거점은 대외관광객을 견인하고 집중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하고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하며 영도가 최적지이다. 이곳은 다양한 관광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구별 계획이 필수적이다.

셋째, 해상관광은 해상에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해안 및 해상경관, 지역축제, 지역별 산업적 특색 등을 접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각각의 관광거점은 해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부산은 남해안해상관광벨트 및 동해안해상관광벨트와 연계되어 부산시의 4대 전략사업의 하나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해양관광도시로 육성되어야 한다.

넷째, 해상관광활성화를 위한 개발은 자연환경 및 사회·산업·문화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특히 해운대-광안대교-북항대교-영도-김해 국제공항으로 연계되는 해상관광교통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해상관광의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축제와 산업적 특색을 계절별로 특화하여야 하며 계절에 적합한 해상관광자원이 개발되어야 한다.

註

- 1) 해상관광(Marine Tourism, Coastal Tourism)이란 관광객이 해안, 도서, 선박 등을 근거지로 하여 해상이나 해상의 대기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레저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관광객의 해상관광레저활동은 해상경관의 감상이나 해상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해상경관의 관광대상은 해수면운동, 등대와 바다, 선박과 바다, 양식장과 바다, 도서와 바다, 해안지형과 바다, 바다새와 바다, 고래 또는 돌고래와 바다, 수족관, 등대와 해안지형, 일출과 일몰 등이다. 관광객의 해상체험활동은 선박, 어업용 도구, 레저용기구 등을 이용하거나 해안이나 해저에 분포하고 있는 해안지형물과 해저생물을 접촉하면서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상관광을 관광정책의 주체에서는 해양관광 또는 연안관광으로 표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2) 시·도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관광지로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이 우수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공공사업으로 개발되고 관광객이용시설은 민자유치로 개발된다. 태종대, 해운대, 황령산, 용호 씨사이드 등이 지정관광지이다.
- 3) 지정관광지와 같이 시·도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관광지로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활동과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비교적 넓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의 관광지이다. 동부산관광단지가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 4) 관광특구는 관광지등 또는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에서 관광객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고 완화되어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관광지이다. 부산에는 해운대관광특구가 있다.
- 5) 자연공원은 자연경관의 요소인 하천계곡, 폭포, 기암괴석, 산봉과 산사면, 동·식물 등의 자연자원과 문화와 역사적 유물을 보전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이용으로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여 후손들에게 계승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곳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지설지구 등으로 구분된다. 200년 말 20개가 지정되어 보전과 관리가 되고 있다.
- 6) 도시공원은 도시지역내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원이다. 이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구분된다.
- 7) 농촌관광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 활동이며 도시민에게는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농산물판매(1차), 가공산업(2차), 숙박과 음식물 서비스(3차) 등의 소득을 제공하는 관광의 생산과 소비활동이다. 관광농원은 정부가 농촌의 특산물인 채소류, 과일류, 어류, 가축류 등을 제공하며 휴식공간을 확보한 농가를 지원하여 관광공간으로 지정한 곳이다. 녹색 농촌체험마을은 마을경관이 우수하고 민박과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관광과 농촌체험의 관광공간이다.
- 8) 어촌관광은 어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어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 활동이며 도시민에게는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어촌은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생활환경개선, 어촌관광인적자원발굴, 어촌관광운영능력배양, 수산물의 전시와 판매촉진 등으로 건전한 해안레저산업육성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다. 어촌관광은 어촌휴양단지조성,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등으로 개발된다.
- 9) 유원시설지역이란 유원시설업이 입지하여 관광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유원시설업은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되고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의 관광사업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10) 휴양업지역이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에서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이 입지하고 있는 관광공간을 말하

- 는 곳이다. 전문휴양업의 종류는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지역, 수영장, 활공장, 등록체육시설(스키장, 요트장, 골프장 등), 박물관, 미술관 등이다.
- 11) 사찰지역이란 사찰이 특정지역에 입지하여 관광객을 견인하는 관광지를 말한다. 사찰관광지는 자연공원에 입지하여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곳으로 사찰의 문화제가 각각 독특한 특색을 나타낸다. 오늘날 템플스테이관광이 발달하고 있다.
 - 12) 국제적인 해상관광도시란 국제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도시로, 도시의 해안과 해상의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불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해상체험거리 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도시를 말한다.
 - 13) 랜드마크는 일정한 지역의 환경요소(대기현상, 산과 지형, 건물, 구조물, 도서 등) 중에서 형태, 크기, 역사·문화적 상징성 등이 특이하여 시각적 이미지가 지역성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변화된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랜드마크는 상징성과 시각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상징물의 개발로 변화한다. 부산은 동래온천, 영도다리, 오륙도, 해운대, 태종대, 용두산공원 등이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였고 광안대교도 랜드마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참 고 문 헌

김성귀, 1997, 어촌종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축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48.
 김성귀, 2000,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8.
 김성귀, 2001, 어촌관광의 활성화 방안, 월간해양수산, 188, 30-43.
 김성귀, 2006, 다기능 어항에서의 마리나 조성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225.
 김재관, 1996, 부산의 관광개발방향과 그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지리학회지, 1-25.
 김재관, 2006, 영도등대-목도의 해양관광,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활성화 및 무인도서 관광연계방안 연구보고서, (사) 자연사·미래환경학회, 254-265.
 김재관, 2006, 관광정책론, 형설출판사, 221-227.
 김재관, 2006, 관광자원해설론, 형설출판사, 161-184.
 김정봉, 2006, 다기능 어항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27.
 김종호·변재상·임승민, 2002, 랜드마크의 영향력 범위와 인지요인과의 관계, 환경조경학회지, 30(4), 9-18.
 남정호·장원근·최지연·육근형·최희정·이원갑, 2005,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222.
 문화관광부, 2001,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70-117.
 문화관광부, 2006, 2006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1-336.
 박구원·이수옥, 2002, 해안어촌관광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6(3), 한국관광학회, 167-190.
 부산광역시, 2002, 연안관리지역계획, 7-14.
 부산광역시, 2002, 광안대로 관광자원화 조성 기본 계획보고서, 1-38.
 부산광역시, 2002, 해양수도21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시정발전연구단, 1992, 워터프론트와 미래형 도시발전, 10-18.
 부산광역시 영도구, 1999, 영도구 장기종합개발계획, 3-118.
 부산광역시 영도구, 2003, 영도향토지, 31-456.
 서의택, 1997, 친수공간(Waterfront),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5-10.
 성기만, 2003, 국내 해양관광지의 개발방향연구, 한국관광문화연구 제5권 제2호, 189-203.
 손명원, 2006, 금호분지 내 지리관광자원의 자연지리학적 배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2), 202-214.
 이동화·강영조, 1999, 부산항에 있어서 묘박을 위한 랜드마크 체험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7(4), 59-64.
 이승우·황기형·홍장원·박상우, 2002, 미래형 해양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27.
 이승우, 2004,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68.
 이승우·이종훈·홍장원, 2004, 어촌관광단지 사업 후보지 선정 대상지 평가연구, 수탁연구보고서, 1-120.
 이원갑, 2006, 해안개발의 환경적 문제, 월간해양수산, 252, 1-3.
 이원갑, 2006, 연안공간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64.
 이종훈·홍장원·임경희·김효창·김연주, 2004, 해양생태학습장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8.
 윤상호, 2006, 어촌해양관광 종합개발계획수립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7.

- 장학봉 · 김성귀 · 이승우 · 최성에 · 홍장원 · 박상우 · 정경임 · 전재경, 2002,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8.
- 정석중, 2000, 동해안 어촌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안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연구, 6(3), 한국관광정책학회, 1-26.
- 최도석, 1992, 부산항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개발방향 설정, 해양연구소, 연구, 5(2), 1-7.
- 최도석, 2003, 부산의 수상공간 시민여가 및 관광기능 창출에 관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1-9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부산광역시 해안관광개발, 중간보고서, 3-68.
- 해양수산부, 2002, 한국의 해양문화, 요약보고서, 73-122.
- 해양수산부, 2003,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업무보고서, 1-24.
- 해양수산부, 2004, 해양관광진흥 세부실천계획, 업무보고서, 1-74.
- 황기형 · 이승우, 2000,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활성화 방안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105.
- 황성수(역), 1984, 도시의 상, 녹원(Kevin Lynch, 1960, *The Image of the City*, The MIT Press, Cambridge.)
- 황진희 · 홍장원 · 김은수, 2006, 크루즈 관광산업발전기반 조성방안,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249.
- Agardy, T. 1995, Marine eco-tourism: Fundamental characteristics and links to conservation. In Hooten AJ, Hatzios M.E. (eds) *Sustainable Financing Mechanisms for Coral Reef Conservation*, Proceedings of a workshop, World Bank, Washington DC., 25-26.
- Agarwal, S., 2002, Restructuring seaside tourism: The resort lifecyc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 25-55.
- Birtles, R.A., Valentine, P. and Curnock M., 2001, *Tourism Based on Free-Ranging Marine Wildlife: Opportunities and Responsibilities*. Wildlife Tourism in Australia Series. CRC for Sustainable Tourism, Gold Coast, Queensland.
- Harriott, V.J., 2002, *Marine Tourism Impacts and Their Management on the Great Barrier Reef*, CRC Reef Research Centre Technical Report No 46, 1-35.
- Hoyt, E., 2000, *Whale Watching 2000. Worldwide Tourism Numbers, Expenditures and Expanding Socioeconomic Benefits*, IFAW. Crowborough, UK.
- Moscardo, G., 1999, Supporting ecologically sustainable tourism on the Great Barrier Reef: the importance of visitor research. In Molloy, D.J.(eds), *Tourism and Hospitality: Delighting the Senses*. Bureau of Tourism Research, Canberra, 236-253.
- Orams, M.B., 1996, World Congress on coastal and marine tourism, *Tourism Management*, 18(2), 115-117
- Jennings, S., 2004, Coastal tourism and shoreline manage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 899-917.

(집수 : 2007. 2. 26, 채택 : 2007. 3. 21)